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듬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31	09. 07	09. 14
대 표 기 도	이윤선 성도	이상호 목사	최종열 성도
성 경 봉 독	이윤선 성도	정환영 형제	최종열 성도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e)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한국 방문 - 오세란 자매(25일)
4.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모입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십 일 조	
감사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8월)	

#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HanMin Gemeinde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홈페이지 : <http://www.brehanmin.de>

##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 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 영 Chor	-----	반주자
*기 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 송 Gemeindelied	292장	다같이
기 도 Gebet	-----	정환영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겔 15 : 1 - 8(구p1169) (Hesekiel 8:5-13)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열매 없는 신앙의 허무함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 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헌금함에 넣어 주세요.

### †기도제목

1. 예배 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 두 마음을 품으면 열매가 없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역운동 FTT(Finishing The Task)의 국제사역 개발 책임자인 안강희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1976년 대학시절부터 한국대학생선교회를 접한 안 선교사님은 졸업 이후 줄곧 간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나는 안 선교사님과 교제했는데 그가 하는 말은 늘 한결 같았습니다.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잃어버린 영혼, 멈출 수 없는 교회 개혁, 언제 어디서나 만나건 30대와 40대를 거쳐 50대 초반이 된 지금까지도 그의 메시지는 그대로였습니다. 평생 한 가지를 붙들고 변함없이 복음의 야전사령관으로 살아가는 그가 참으로 등직하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1992년부터 약 1년 반 동안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지냈던 나는 16년 만에 일본으로 출장가면서 예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훌륭한 사역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땅에 떨어진 한 일의 밀알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임을 깨달았습니다. 순전한 믿음으로 뿌린 한 일의 밀알은 땅에 떨어져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 뿌린 씨앗에서는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역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이태형(언론인)

###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나?
2. 공의와 사랑의 균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